

농부꽃

2026 여름 64

특집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기억을 잇는 사람들

유돈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시헌의 증손자

전시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전운소를 혁파하라'

1894 한 바퀴

푸른 풍경 사이로 이어지는 상주의 그날, 1894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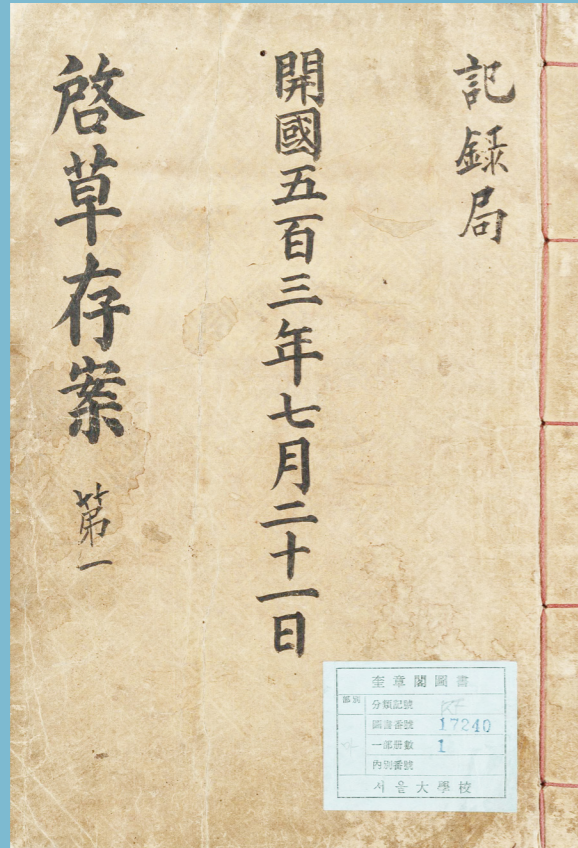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unesco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그날 속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계초존안(啓草存案)』

『계초존안(啓草存案)』은 의정부 기록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1894년 7월부터 11월까지 각 도의 관찰사·안핵사·선무사 등이 올린 장계를 모아 필사한 자료이다. 이 기록에는 동학농민군을 포함한 각 지방 봉기의 동향과 지방의 대응, 그리고 전운소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긴박한 정세와 전운소를 둘러싼 현실을 살펴볼 수 있어,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시 『전운소를 혁파하라』와 맞닿아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널



홈페이지 | 웹진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 02 계절이 지나간 자리
기념공원의 여름
- 04 특집
132년의 먼 길을 돌아,
서울에서 피어난 '대동의 꽃'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12 기억을 잇는 사람들
기록이 증명한 명예,
선조의 뜻을 잇는 후손의 자부심
유돈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시현의 증손자
- 20 재단 이야기
- 26 전시
전운소를 혁파하라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 32 1894 한바퀴
푸른 풍경 사이로 이어지는
상주의 그날, 1894
- 36 울림의 현장
- 44 녹두꽃 다시 피다
- 46 독자 참여 이벤트

통권 64호 (ISSN 3092-4219)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화 063-530-9413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팩스 063-538-2893
 발행인 신순철 기획·편집 임현진
 이메일 1894@1894.or.kr 제작 (주)하이브파트너스
 편집자문위원 최명주, 최기우, 김회경, 최두현, 신병구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구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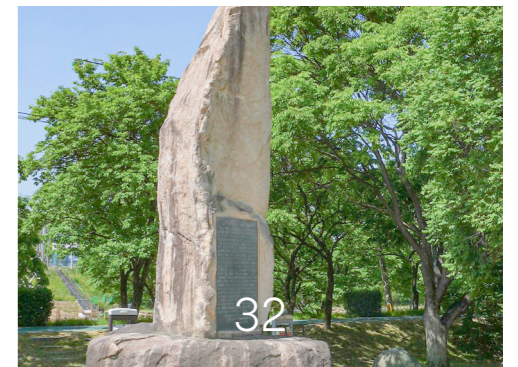
04



12



26



32

눈부신 여름빛 가득한 들녘



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132년의 먼 길을 돌아, 서울에서 피어난 '대동(大同)의 꽃'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최두현 | 재단 기획운영부장

서울, 서울, 서울!

이곳은 시대의 중심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변방의 소외감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장소였고, 누군가에게는 거부감 섞인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132년 전 동학농민군이 목숨을 걸고 가닿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의 목적지이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서울로 진격하여 부패한 조선 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을 침략한 외세 군대를 몰아내려 하였다. 이들의 꿈은 일본군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우금티와 논산, 태인, 장흥, 흥천, 하동 등 전국 곳곳의 전투에서 좌절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계속된 동학농민군 색출·진압으로 많은 동학농민군이 고향을 떠나고,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다수가 처형되었다. 진압군과 외세가 차지한 역사는 이들을 반역과 반란으로 몰아세웠다. 희생된 동학농민군과 유족들은 그렇게 긴긴 세월 동안 숨어 지내고 외면받으며 살아야 하였다.

2026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그토록 바랐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이 다시 서울에서 피어올랐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이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거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국립

중앙박물관 대강당에 동학농민군 후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400여 명이 모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민중혁명의 역사를 만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선양하고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였다.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 애국가 선창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대독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민주주의 뿌리로 인정

그리고 이날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기념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되었다”고 혁명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시작된 이래 처음 나온 대통령 메시지는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식적인 ‘뿌리’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향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헌법 전문 수록, 서훈 등 관련 제도 개선,

유족의 명예 회복 등에 큰 진전을 가져올 나침반이 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념사업단체, 역사학계, 시민사회 등과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2026년에 새롭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인정된 631명에게 유족등록통지서를 전달하였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란과 동학난으로 폄하되거나 왜곡된 채 지나왔던 아픔을 씻는 자리였다. 국가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조치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당시 조선 정부 및 진압군 기록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확인하고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고증과 심의 과정을 거쳐 그 후손에게 유족등록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 왼쪽부터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김재록 유족, 정탄진 (사)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유족등록통지서, 국가가 보낸 응답

외형상으로는 간단한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은 100년 이상 이어온 왜곡과 불명예를 바로잡는 국가가 보낸 응답이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과 정탄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으로부터 신규 유족 대표로 유족등록통지서를 받은 김재록 님은 전남 광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김유태 참여자의 후손이다. 그는 “이제야 역사 현장에서 쓰러진 조상이 명예를 회복해 더없이 뿌듯하다”며 “국가가 아직 찾지 못한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발굴에 더 노력해 주길 요청” 하였다. 이어진 기념공연에서는 극단 한훤과 브릴란테 어린이합창단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힌 공연을 선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이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등을 주제로, 동학농민군의 보국안민 정신과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염원을 담아냈다.

132년 전, 미처 닿지 못했던 한양의 문턱을 넘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울려 퍼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 커다란 이정표였다. 그럼에도 일부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의 완전한 주류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뜨거운 갈망’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그 갈망이 실현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다음 기념식에서는 대통령과 유족이 손을 맞잡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132년 전의 함성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었다. 재단은 이 울림이 멈추지 않도록 선양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기념공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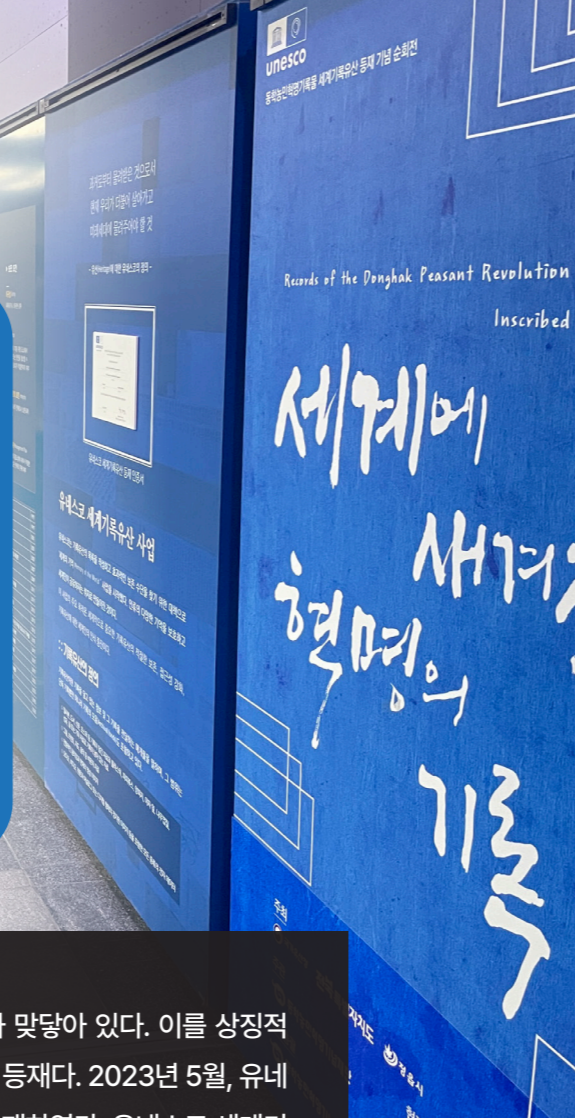
주요 참석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준병 국회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인준 천도교 교령,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정탄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고재국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대표,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400여명 참석

인류 보편 가치로 인정받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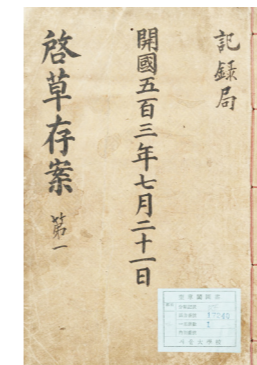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연계 순회전시
기간: 5. 6. ~ 5. 1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각종 사회개혁안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다. 2023년 5월, 유네스코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해당 기록물이 인류가 미래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인류번영과 공동체를 위한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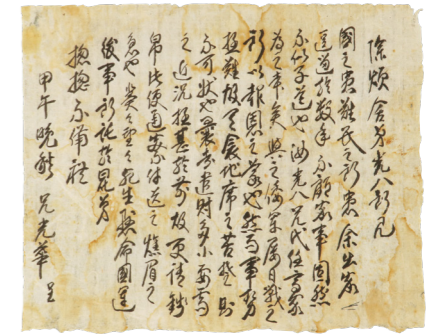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기록물과 조선 정부, 진압에 나선 관군, 지역 유생 등이 작성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이 사료들은 당시 조선사회의 부패한 현실과 동학농민군이 들고 일어난 배경,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 동학농민군의 애국심과 애민 정신 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들 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맞추어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관련 순회전시를 열었다. 나들길은 지하철 이촌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지하통로로, 국립중앙박물관이 K-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떠오르며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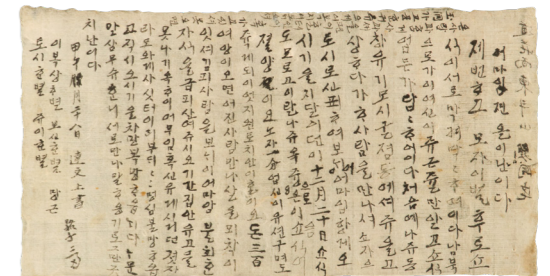
불과 1주일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오가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관점이 담긴 기록물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몰랐는데, 동학농민혁명 역사가 세계 시민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반갑고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 정부에서 작성한 기록물_『계초존안(啓草存案)』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기록물_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기록물_한달문 편지

지난해 1년 동안 호남지역을 순회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는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 전시를 시작으로 충청권 순회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청주 오송역, 9월 구)공주읍사무소, 10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132년 전 과거의 일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자주, 정의, 평등의 정신은 독립운동과 각종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더 완전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순회전시는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디딤돌이다. 1894년 갑오년의 햇불이 오늘의 빛이 되고 있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 관계자 여러분,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
민혁명 참여자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32주년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
대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
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되
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나
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
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우리가 마주한 격차를 뛰어
넘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
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
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
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대통령 이재명



기록이 증명한 명예, 선조의 뜻을 잇는 후손의 자부심

유돈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시현의 증손자

날짜 2026. 4. 24.(금)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참여자 유시현(1843~1904)

유족 유돈생(유시현의 증손자)

대담 기획운영부 임현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시현 선생은 19세기 후반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 지도자로, 1871년 무렵 동학에 입도한 뒤 해월 최시형 선생과 인연을 맺고 강원도 교세 확산에 힘쓴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최시형 선생에게 정선의 무은담 자택을 은거지로 제공하며 교단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강원도 평의장과 도접주를 맡아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이끌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족들 또한 혹독한 탄압과 고초를 겪었으며, 그 과정은 장남 유택하 선생이 남긴 『동학난중기(東學亂中記)』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유시현 선생의 증손자 유돈생님을 만나, 집안에 전해 내려온 기록과 기억, 그리고 유족으로서의 소회를 들었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독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신 유시현 증조할아버님의 증손자 유돈생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이름이 『녹두꽃』이지요. 그간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세상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여러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그늘에 있던 녹두꽃이 활짝 피어나 전국적으로 그 향기가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아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동학농민군의 명복을 빌며, 이제는 그분들께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고이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먼 곳까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녹두꽃이 활짝 피어나 전국적으로 그 향기가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아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집안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또한, 집안에서 현재 참여자로 공식 인정되신 분들은 모두 몇 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기록물 덕분이었습니다. 유시현 증조할아버님께서 생전에 소장하고 계셨던 『최선생문집 도원기서』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이 귀한 자료가 집안에서 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직접 보고 공부하며 우리 선조들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택하 할아버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신 『동학난중기(東學亂中記)』라는 책을 직접 쓰셨는데, 그 기록 속에 담긴 고초와 행적을 통해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현재 참여자로 인정되신 분은 유시현(본명 유인상) 증조할아버님, 최시화 증조할머님, 유택하 할아버님, 그리고 유택하 둘째 할아버님까지 모두 네 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택하(유시현의 장남)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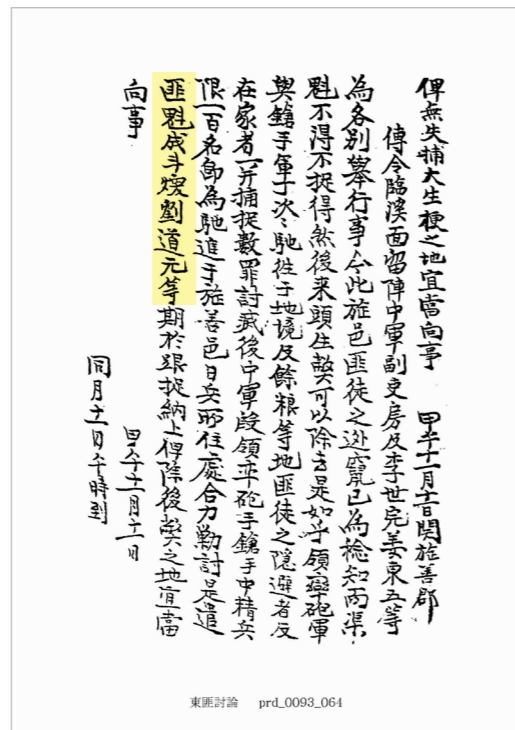
● '시헌'이라는 성함에도 동학의 의미가 깊게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님께서 정선의 '무은담' 자택을 은거지로 제공하며 교단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셨는데, 유시헌 선생님과 강원도 동학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시헌 증조할아버님께서는 1871년 무렵 동학에 입도하신 후, 영월의 박용걸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며 해월 최시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어 1872년경 최시형 선생님을 무은담 자택으로 모셔 왔습니다. 당시 무은담은 이름 그대로 안개가 깊고 산속 깊숙이 위치해 있어 관군의 눈을 피해야 하는 은신처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식량을 정성껏 제공하고 49일 기도를 올리며 동학의 여러 의례와 수행 질서를 정비하는 데 힘썼다고 전해집니다.

또 그곳을 기반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면서 비로소 정선 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지요. 당시 교인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최시형 선생님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시(時)' 혹은 '활(活)'자로 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저희 증조할아버님도 본명은 '유인상'이나 이때 '유시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증조할아버님께서는 강원도 평의장이자 도접주라는 중책을 맡으시며 도내의 수많은 동학 지도자 및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혁명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유시헌 선생님과 그 가족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정선읍으로 모여든 동학농민군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동비토론(東匪討論)』에 따르면, 당시 강릉부사였던 이회원은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을 정선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인물인 '비괴'로 지목하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관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비토론(東匪討論)』

가족들이 겪은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시화 증조할머님은 1894년 11월 평창에서 잡혀 모진 옥고를 치르며 석방과 재투옥을 반복 하셨습니다. 당시 겨우 13살이었던 유택구 넷째 할아버님은 현상금을 노린 밀고로 인해 평창 옥에 갇히셨습니다. 최시화 증조할머님께서도 석방된 후 몇 달간 그 어린 아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하며 유택구 넷째 할아버님을 보살폈습니다.

가장 비통한 일은 유택학 둘째 할아버님의 죽음입니다. 1894년 11월 영월 옥에 수감되셨는데, 관군의 모진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도접주였던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의 거취를 대라는 취조에 유택학 둘째 할아버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하늘이니 하늘에서 찾아라”라며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온 집안이 쫓기던 중이라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유택학 할아버님 또한 쇠사슬에 묶인 채 동료들의 행방을 대라며 사방으로 끌려다니시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셨습니다. 유택은 셋째 할아버님도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은 1896년 검거되어 평창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기록물인 『동학난중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이니 하늘에서 찾아라”

● 『동학난중기(東學亂中記)』에 의하면 유시헌 선생님이 평창 옥에 투옥되셨을 때, 제자들과 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석방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선생님에 대한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 전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유시헌 증조할아버님께서는 강원도 도접주이자 평의장으로서 종교적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덕망을 갖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께 듣기로는 당시 정선 지역 정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헌 증조할아버님께서 옥에 갇히시자,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도인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상소문을 올리며 조직적인 석방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개 개인을 위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이토록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노력 덕분에 결국 15일 만에 옥에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동학난중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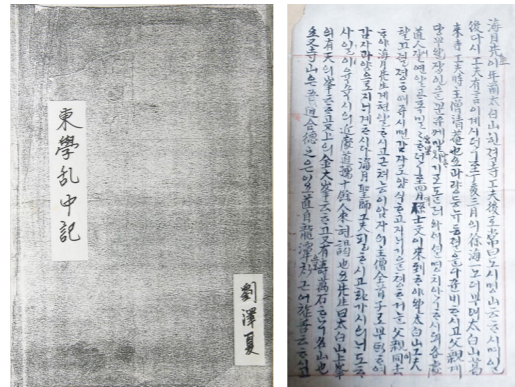
● 유시헌 선생님의 배우자이신 최시화 선생님이 투옥될 당시 가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로 인해 후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군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무려 10여 년 이상을 도피 생활로 보냈으니, 집안에 살림살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것이지요.

옥에서 겨우 몸을 빼내 나오셨을 때도 돌아갈 집조차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선의 수령마을이라는 곳에 빈 농막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여기저기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그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온 가족이 옥고를 치러야 했으니 그 고통의 무게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유시헌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유태하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동학난중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기록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나, 후손으로서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 속에 담긴 여러 일화 중에서도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시헌 증조할아버님께서 피난을 다니시던 중 경주의



『동학난중기(東學亂中記)』

어느 한 주막에 머무르게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정체를 숨기려고 “강릉에서 내려온 유 씨”라고만 소개하셨는데, 주막 아주머니 한 분이 단번에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을 알아보시고는 “정선의 유접(유시헌 접주) 아니십니까?”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의 존함이 멀리 경주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잠시 후 주막에 나줄 열 몇 명이 들이닥쳤는데, 그들도 외려 “정선 유접 어른이니 고이 모셔라”라고 하며 예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후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동학난중기』는 1887년부터 1897년까지의 동학농민혁명 전후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을 비롯한 일가족이 관아의 매서운 추격을 피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을 전전하며 겪은 고난의 세월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었던 동학교도들의 이름과 거주지도 기록에 남아 있어 당시 동학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 후손에게 가장 뜻깊은 점은 이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기에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입증하고 유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이 기록은 표지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성을 담아 “동학난중기(東學亂中記)”라는 글자를 써서 표지로 삼았습니다.

● 유시헌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집안에서 중시하는 가치나 실천해오신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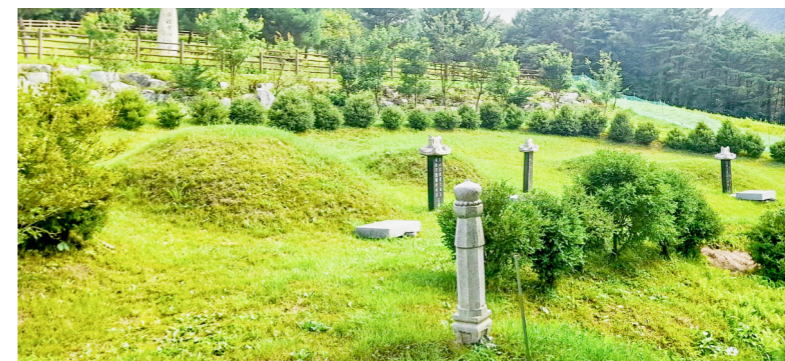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사업에 도전했다가 돈도 많이 잃어보고 숱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런 부침 속에서도 제가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30대에 마을 이장을 맡아 면사무소에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사무소 직원

수십 명 중 지역 출신은 고작 두세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한문이나 조금 배울 뿐, 고등학교 진학은커녕 중등 교육조차 꿈꾸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대학 졸업자는 거의 없고 고졸자도 열 명 남짓이었지요. 여유가 없어 공부를 못시키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료 교육을 열고자 이곳저곳에 지원 요청도 하고 수업을 해 주실 선생님들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뜻있는 지역 인사인 안영배 님을 찾아가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학교가 정선 지역의 유일한 사립학교인 문곡중학교의 전신입니다.

또한, 옥사하신 유태하 둘째 할아버님을 평생 모시며 절개를 지키신 정학렬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효행공원’을 만들고, 유시헌 증조할아버님의 일생을 기록한 ‘행적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중시하는 효의 가치와 할아버님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 했던 저 나름의 실천이었습니다.



효행공원



유시헌 선생 행적비

● 유족 등록을 신청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
있나요?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거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유족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사위원으로 계시는 김춘성 선생님과 귀한 인연이 닿았습니다. 김춘성 선생님은 정선 출신으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김춘성 선생님께서는 “정선 지역의 참여자와 유족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역사에 등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사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안을 찾아내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안에는 『동학난중기』처럼 명확하고 생생한 당대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월하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족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감회는 어떠셨나
요? 집안 가족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가 시작되고 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희에게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움도 아주 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우리 조상님들의 존함이 국가의 공식 명단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했을 때 추모관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의 명패가 경건하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작년에 등록이 되었으니, 아마 이제는 저희 할아버님들의 명패도 그곳에 자랑스럽게 모셔져 있겠지요. 후손으로서 그 광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국가에 어떻게 이 고마움을 보답해야 할지 그런 마음뿐입니다.

●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동
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혹은 정부에 하시고 싶
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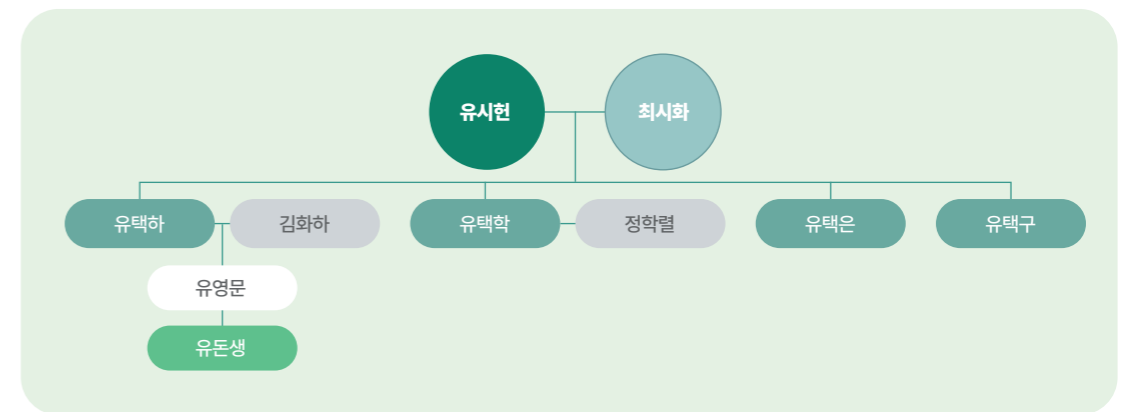
후손으로서 드릴 말씀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 뿐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그 혹독한 시절에 큰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숭고한 참여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후손들도 조상님들이 남기신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뜻을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돈생 선생님, 오늘 집안 어른들의 귀한
발자취와 가슴 뭉클한 가족사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족 인터뷰
를 마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추모관에 모셔진 유도원(유시현의 자), 유택하, 유택학, 최시화 참여자 명패



유시현 참여자 가계도

재단 이야기

2026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2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념관 운영 회계 결산(안)이 심의·의결되었고 2026년도 기념관 사업 계획안이 보고·접수되었다.

회의에는 ▲염영선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비롯해 ▲이지현(전주대학교 교수), ▲최원창(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곽형주(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도현(법무법인 영 변호사), ▲신원식(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승섭(재단 사무처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기념관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중적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6년도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협의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와 선정 학교 담당 교사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였다.

'1894 시간여행'은 전북 도내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를 답사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등학생 2,7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의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하다

2026년 제2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4월 7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2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27명이 지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정되었다.

이날 발대식은 사무처장 인사 말씀과 기념촬영,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기념공원·박물관 해설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상견례와 현장 관람을 통해 재단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은 시민의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하고,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현장 소식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재단은 제2기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계기로 시민 참여형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 블로그
바로가기



라디오 캠페인 통해 기념공원 홍보 진행

지역 밀착형 매체로 방문 유도와 인지도 제고 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홍보는 지역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공원의 공간적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고 기념공원을 찾는 방문객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라디오 광고에는 기념공원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문화휴식 공간이라는 점을 전달하였다.

재단은 이번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념공원이 역

사교육과 추모의 공간이자 지역민이 함께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27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26년 4월 2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27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순철 위원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전 도교 선도사), ▲배항섭(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탄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이정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김영아 사무관 대리 참석), ▲이재복(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류동연 학예연구관 대리 참석)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4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유족 631명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4,066명, 유족은 14,472명에 이르게 되었다.



고창지역 사회변동 입체 조명한 학술대회 개최

2026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4월 30일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교육실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사회변동-동학농민혁명, 고창을 뒤흔들다-'를 주제로 2026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석규(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의 「근대 행정구역 개편과 고창지역의 변화」,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전후 흥덕의 지역 상황과 향리 동향」,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의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수습책과 사회경제적 현안」, ▲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토지 소유 구조와 소유자」 등 4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고창지역 사회변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혁명의 영향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지역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체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존·활용 협력 강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5월 7일 재단 교육관에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복원·복제·관리 등을 통한 보존성 향상과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약 2개월간 사전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건에 대

한 복원·복제 작업을 완료하고 인수인계 행사를 진행하였다. 재단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고부관아터 사적 지정 위한 학술대회 열려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부 역사와 관아터 고증 논의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5월 27일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고부의 역사와 고부관아터 고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부관아터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의 역사와 고부관아터, 고부농민봉기, 고부관아 복원 등 지역사 연구와 관련 콘텐츠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과 고정희 정읍시 문화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학술대회의 의미를 공유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허인욱(전북대학교 교수)이 「고부의 행정구역 변화와 지역 인식」을, ▲김미란(전라

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이 「고부관아 축성과 변천」을, ▲정수환(서울대학교 연구원)이 「19세기말 고부관아터의 공간 구성과 특징」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부의 역사와 고부관아터의 공간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부관아터의 사적지정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6호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5월 31일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6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특집논문, 일반논문, 자료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집논문의 주제는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투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의 위치를 면밀히 고증하고 향후 정비 방향과 기념공간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일반논문은 ▲「근대 전환기의 불안현의 모습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로, 19세기 후반 근대전환기 불안현의 사회상과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인간형과 부안의 지역적 특징을 조명하였다.

아울러 자료 소개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안현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수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민장책(民狀冊)』의 해제와 영인본도 함께 수록하였다.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저널 사이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바로가기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가족 참여형 피크닉 체험으로
역사 이해와 문화향유 함께 넓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학농민혁명박물관과 기념공원 일대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박물관 피크닉'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16일, 17일, 23일, 24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야외 피크닉 체험과 실내 교육 프로그램, SNS 참여형 이벤트를 연계해 관람객이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모두 758명이 참여해 가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관람객이 28.7% 증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가족 방문이 이어졌다. 재단은 앞으로도 전시와 교육,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근정포장 수훈

이혜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6월 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2026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혜은 이사는 국외 유출 기록유산 조사 및 수집,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포장을 수상하였다. 이혜은 이사는 수상 직후 "뜻하지 않게 너무 큰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기록물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빛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곡을 둘러싼 사람들 이야기, 전운소를 혁파하라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기간

2026. 5. 11. ~ 2026. 9. 6.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시기획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주최·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각 지역에서 모인 세곡을 싣고 나르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각 지역에서 기른 세곡을 수도 한양으로 운반하기 위해 운영된 국가 선박이다. 지방에서 기른 세곡은 먼저 조창에 모였고, 이후 배에 싣어 바다와 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운영된 배들은 사재관을 따라 직항한 뒤 한남 반주로 불어와 도성 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운송은 한 척의 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척이 함께 움직이며 일정한 경로를 따라 항해했고 바다와 강을 이어야 하는 특성상 계절과 수로 조건을 고려한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곡 운반선 船運船
유물 등(船運圖, 1797~1859년 중아해 차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각선도본(各船圖本)』

해로를 이용해 나라의 세곡을 운반한 '조운제도'와 가장 말단직, '조군'

조운*이란, 고려시대부터 1895년 폐지되기 전까지 전국 주요 지역의 조창에 주변 지역의 세곡을 모아 배를 이용해 경창에 납부하던 세곡 운반 제도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세곡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조선 정부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세곡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운반하는 세곡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동학농민혁명기에도 여전히 시행되는 제도였습니다. 세곡을 모아 놓던 조창은 고려시대 전국에 13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양반 후 여러 차례 정비를 거쳐 조선 후기에는 9개의 조창이 확인됩니다.

*조운: 강과 바다 등 물길을 이용해 세곡을 운반하던 일

*세곡(稅穀): 쌀과 콩 등 백성들로부터 걷은 세금
*혁파(革罷): 묵은 기구, 제도 등 낡아서 못쓰게 된 것을 개혁하여 없앴





고쿠민신문(國民新聞)_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고쿠민신문(國民新聞)_동학당의 정만기(鄭萬基)를 붙잡아 말에 태우다

동학농민군의 세곡선 한양호 습격 사건

이러한 가운데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 농민군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세곡선 한양호 습격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급인 송문수를 필두로 수천 명에서 1만 명까지 추산되는 동학농민군이 군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각종 폐단의 주범이었던 호남 전운사는 이미 도망간 뒤였으나, 이 사건은 일본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과 『고쿠민신문(國民新聞)』 등에도 보도되는 등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공사관 임시대리공사 스키무라 후카시(杉村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소요의 근본 원인은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것일 뿐만이 아니고 각 읍의 이서(吏胥)들도 전운하는 데 지

쳤으므로 죽을힘을 다해 전운을 폐지하려고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안팎에서 서로 호응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전운소에서 일하던 이들도 동학농민군과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폐이정사목(漕弊釐正事目)』



30만 동학농민군을 추적하는 일

동학농민혁명 참여 인원은 전국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농민'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참여자의 모습을 '농민'으로 제한하여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직업군은 '사·농·공·상'으로 구분하였기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군인 '농민'을 명칭에 넣은 것일 뿐 참여자들이 전부 농민인 것은 아닙니다. 사농공상에 포함되지 않은 칠천반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 지역의 현감이나 향교의 재장(齋長), 무관관인 등 흔히 양반으로 구분하는 이들의 참여 기록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조선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던 무명 농민군을 추적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운제도'와 '조군'은 1894년까지 존속하였음에도 지금은 사라진 제도와 직군인 탓에 그 규모를 떠올리기조차 어렵지만, 분명히 조선 사회 전체에 존재했었습니다. 전시를 통해 30만 동학농민군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풍경 사이로 이어지는 상주의 그날, 1894

경상북도 상주시

감나무 잎이 짙어지고 강가의 바람이 뜨거워지는 계절, 상주의 여름은 조용히 깊어진다. 꽃감의 고향으로 익숙한 이곳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도 함께 남아 있다. 푸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평범한 풍경 속에 스며 있는 민초들의 바람과 희생을 마주하게 된다.

임란북천전적지 태평루

상주 동학농민군이 많이 처형되었던 곳. 현재 임란북천전적지에 자리함.



상주자전거박물관

자전거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와 체험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상주꽃감공원

상주의 대표 특산물인 꽃감을 주제로 조성된 이야기·체험형 공원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상주 지역 동학농민군의 넋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글: 이영은, 사진: 김동민

여름빛으로 만나는 상주의 맛, 상주꽃감공원

예로부터 꽃감의 고향으로 알려진 상주. 상주 꽃감공원은 그 명성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꽃감에 얽힌 이야기와 지역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꽃감이 익어가는 가을의 풍경도 좋지만, 여름 햇살 아래 푸르게 자란 감나무와 조용한 산책로가 상주의 또 다른 계절을 보여준다. 여정의 시작에서 만나는 이 평온한 풍경은 이후 이어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의미를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상주꽃감공원 연지네집 전경

	경북 상주시 소은1길 59-12
주요 볼거리	감락원, 야외탐방로, 연지네집 등

길에 남은 그날의 기억,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평온한 풍경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다. 이곳은 1894년, 상주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 시설이다. 작은 공원에 자리한 비이지만, 상주가 동학농민혁명의 흐름 속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다. 특히 상주 지역은 1894년 5월 무렵부터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기록된다. 부패한 현실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뜻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다. 기념비 앞에 서면, 더 나은 세상을 바랐던 이들의 희생과 의지가 오늘의 상주 풍경 속에 조용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경북 상주시 무양동 1-189
--	------------------

희생이 남은 자리, 태평루

기념비에서 발걸음을 조금만 옮기면 태평루가 자리한 임란북천전적지에 닿는다. 현재의 태평루는 이곳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지만, 본래는 관아의 문루였던 건물이다. 태평루가 있던 옛 관아 터는 현재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대이며, 동학농민군 처형지로 기록되어 있다. 태평루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아픈 기억과 깊이 연결된다. 당시 이 지역은 동학농민군 진압의 거점이 되었고, 붙잡힌 많은 동학농민군이 관아로 끌려와 형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태평루 전경



임란북천전적비

오늘의 태평루는 조용한 누각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안에는 1894년의 무거운 시간이 담겨 있다. 부패한 현실과 외세의 침탈에 맞섰던 동학농민군의 뜻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오늘의 자리에서 되새기게 한다.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123
주요 볼거리	임란북천전적비, 태평루, 순국비, 충렬사, 전시관 등



상주자전거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

두 바퀴로 만나는 오늘의 풍경, 상주자전거박물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긴 뒤, 오늘의 상주를 만나 보자.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자전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를 구경하다 보면 시대별 자전거의 모습과 구조,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고, 앞선 유적지 답사 뒤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며 쉬어가기에도 알맞다.

	경북 상주시 용마로 415
주요 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시 및 상설 전시 • 4D상영장 및 상설 체험 • 자전거 체험장

두 바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듯, 이번 여정도 상주의 과거와 현재를 차례로 이어간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을 따라 걸은 뒤 마주하는 자전거박물관은 오늘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상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주자전거박물관 외관



울림의 현장



서울 특별시 순국 제131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는 4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26-1 보신각 맞은편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순국 제131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추모제에는 주요 내빈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추념사와 추모사, 살풀이와 추모공연에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추모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이끄는 순국한 전봉준 장군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봉준 장군의 희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경기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여주시는 4월 13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여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념사업 범위에는 유적지 발굴·보존·정비를 비롯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기념 및 추모사업, 조사·연구·학술·교육·전시·문화예술·홍보사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교육과 문화, 정책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보은

제21회 보은동학제

보은문화원이 주최하고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1회 보은동학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보은문화예술회관, 속리초등학교 운동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보은동학제는 '보은취회와 동학혁명'을 주제로, 133년 전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이를 오늘의 정신문화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날에는 영동 난계국악단 초청 기념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동학취회지 순례와 133주년 보은취회 기념행사, 역사 콘서트, 청소년 퀴즈한마당, 전시·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보은동학농민혁명군 천도재와 132주기 보은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가 봉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은이 지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문화와 교육 속에서 이어가는 자리로 의미를 더하였다.



경남
산청

제132주년 산청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5월 11일 오전 11시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기념비 앞에서 제132주년 산청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산청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지역 관계자와 기념사업회 회원, 주민 등이 함께해 추모의 뜻을 나누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인 기념식, 식후 합창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기념비 앞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역사회 안에서 그 정신을 이어갈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산청이 지닌 동학농민혁명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영남권 동학농민혁명 유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기억을 오늘의 문화와 공동체 속에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북
김제

'동록개의 꿈 - 다시 원평취회' 문화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4월 11일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에서 '동록개의 꿈-다시 원평취회'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평집강소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소설가 황석영 작가 초청 사인회도 진행되었다. 이어 야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문화제는 역사 현장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북
완주

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운주지회 발대식

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운주지회는 4월 17일 오후 4시 운주행복복지센터 2층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운주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지회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공유하였다.

강순후 운주지회장은 이날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개혁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 의지를 밝혔다. 운주면은 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로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이번 지회 발족을 계기로 기념행사 개최, 역사 교육과 홍보,

지역 내 관련 유산 보존 활동 등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정읍

순국 제131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순국 제131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가 4월 24일 오전 11시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전봉준 장군 단소에서 봉행되었다. 이번 추모제는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운 전봉준 장군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천안 전씨 중앙총친회가 주최하고 전봉준 장군 봉사손이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봉준 장군 행적 소개,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전봉준가 공연과 시티즌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더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봉준 장군의 희생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 사회 속에서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정읍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대에서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열었다. 올해 기념제는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를 구호로 내걸고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대승을 거둔 역사 현장에서 마련되었으며, 공연과 토론, 체험행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기념제 첫날인 5월 9일에는 고부면 신중리 대외마을에서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가 봉행되었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전국농민회가 마련한 이번 위령제는 이름 없이 역사에 헌신한 무명 동학농민군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함께 옛 말목장터를 재현한 체험 공간, 시민 참여형 달빛장터, 야간 경관 프로그램 '1894로의 여행' 등이 더해져 기념제의 의미를 한층 풍성하게 하였다.



전북 고창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4월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과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기관·사회단체장,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제19회 녹두대상 시상, 무장포고문 낭독,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동학 비빔밥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무장기포지에서 구 신왕초까지 약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되새겼고, 동학 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었다.



이와 함께 4월 26일에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진격로 걷기 챌린지가 진행되어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고창군은 무장기포 기념주간(4월 25일~5월 2일)을 운영하며 학술·문화행사를 이어갔다. 이번 기념제는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을 환기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오늘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보여 주었다.

전북 고창

문병학 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장, 제19회 녹두대상 수상

올해로 19회를 맞는 녹두대상의 수상자로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문병학 이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이 넘도록 동학농민혁명에 천착해온 활동가이자 실천가이며 예술 창작자이다.

그는 2024년 1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3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주도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과 국가기념식이 뿌리내리도록 앞장서왔다.



전북
부안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식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 기념식이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백산다목적 센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백산 중·고등학생,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성지 헌화를 시작으로 가두행진과 기념식에 함께하며, 동학농민군이 조직적 대오를 갖추고 혁명의 대의를 천명했던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백산대회가 지닌 상징성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남
장흥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라남도 기념식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5월 7일 장흥읍 중앙로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라남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한 가운데 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폭넓게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내빈 소개, 기념사업 경과보고, 폐정개혁안 12개조 낭독, 기념사와 추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기념공연 '깃발에서 빛으로'는 석대들 전투와 패전 이후 동학농민군의 행로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전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이 이후 항일과 민주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는 점을 되새기게 하였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에서 헌화와 분향, 참배를 이어가며 기념식의 뜻을 더하였다.



전남
순천

1894 동학농민혁명 순천 영호도회소 역사화 전시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과 순천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을 맞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실에서 '1894 동학농민혁명 순천영호도회소 역사화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순천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위상을 살피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역사화로 풀어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는 박금만·박홍규·심성희 작가가 참여해 민중 봉기와 순천도호부 입성 장면 등을 작품으로 재현하였다.

순천도호부는 전주화약 이후 폐정개혁과 봉건질서 해체가 추진되던 시기 영호남 동학농민군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을 돌아보는 한편,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
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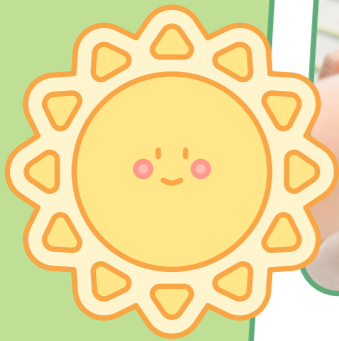
제132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5월 27일 장성군 황룡면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공원에서 제132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동학농민군의 최대 승전지로 꼽히는 황룡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시대 변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장성부군수, 기념사업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황룡전투가 지닌 역사적 위상을 살피며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준 자주와 개혁의 뜻을 되새겼다.



녹두꽃 다시 피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병아리 소풍



박물관 피크닉



1894 시간여행



박물관 피크닉



퀴즈 이벤트

소식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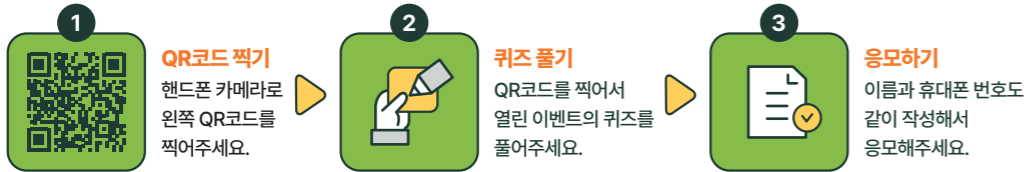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퀴즈 이벤트

2026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1 전북특별자치도민
- 2 동학농민군
- 3 공모 희망자 누구나
- 4 웹툰 관련 전공자

응모 방법



당첨자 선물 30명
올리브영 상품권 1만원권

응모 기간 2026. 07. 01.(수) ~ 07. 25.(토)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본 이벤트는 1인 1회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하며,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경품은 참여 시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발송되므로, 오기입으로 인한 오배송 시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폐기됩니다.

63호 퀴즈 이벤트 당첨 안내

Q.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매년 5월 OO일에 거행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날짜는?

- Ⓐ 5월 5일
- Ⓑ 5월 11일
- Ⓒ 5월 15일
- Ⓓ 5월 18일

이벤트 당첨자

우*광(5896), 정*기(2932), 김*진(5895), 김*석(4440), 조*희(6593), 나*욱(2021), 차*남(8963), 이*인(5292), 광*확(9253), 광*숙(0456), 김*남(5413), 김*주(6196), 호*수(3448), 박*숙(6686), 유*은(0395), 서*훈(8374), 백*곤(5895), 김*성(8355), 김*아(3819), 이*만(5819), 이*진(8956), 정*숙(2748), 신*규(5065), 최*라(1656), 조*나(9990), 이*민(6568), 유*슬(6680), 박*숙(5371), 박*욱(1189), 김*환(8318)



접수기간
10. 12.(월) ~ 10. 26.(월)
18:00

2026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참가자격
공모 희망자 누구나(학생, 개인, 단체 응모 가능)

공모부문
단편웹툰 : 스크롤 형태 2화 이상 화당 60컷 이상
가로 760px, 세로 제한 없음, 300dpi 이상 JPG 포맷

서사적 일러스트 컷 (파노라마 구성)
A1 사이즈(전시용), 300dpi 이상 JPG 포맷

- 공모주제**
- 동학농민혁명 관련 추천 도서 중 한 권 선정 후 전체 또는 일부 내용 각색
- 추천 도서 : 박태원 『갑오농민전쟁』, 송기숙 『녹두장군』, 이광재 『나라 없는 나라』, 『청년 녹두』
 -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시대 의식과 가치를 소재로 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
- 동학농민혁명의 시대 정신 : 평화, 정의 실현, 자주, 상생, 평등, 인권, 민주주의 등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변용해 창작(판타지 장르 가능)
-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응모방법
www.동학농민혁명웹툰공모전.com
※ 홈페이지 내 [접수하기]에서 작품 제출(응모자별 작품 수량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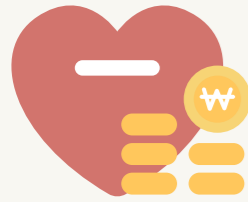
시상내역

장르	당선작	상금
대상	1	2,000만원
최우수상	1	1,000만원
우수상	1	500만원
일러스트 우수상	1	500만원
장려상	3	각 200만원
일러스트 가작	4	각 100만원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6278-3139
※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기부금 모금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기념식 개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기념공원 및 기념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공익법인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용도

- 01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 추진
- 0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 0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 경비 확충
- 0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부 방법

-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담당 (063-530-9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기부자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참여 대상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

기부자 예우

소정의 기념품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 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유족 신청 바로가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곡을 둘러싼 사람들 이야기

전운소를 혁파하라

2026. 5. 11. Mon. — 09. 06. Sun.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